

□ 優秀賞 □

半自動
쓰레기
運搬수레

沈 惠 子

〈仁川 鶴翼国校教師〉

1. 제작동기

무거운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은 우리 주부들의 커다란 임무이다.

시(市)에서 隔日制로 보내고 있는 쓰레기차에 쓰레기를 옮길려면 6살짜리 꼬마까지 엄마의 힘을 덜어 주겠다고 거들어 주어야 할 형편이다.

더군다나 요즘은 연탄 보일러의 사용으로 연탄재의 양이 보통 때보다 2~3배나 나오게 되어 주부들의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고, 더러운 쓰레기통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픈 생각에서, 본인은 이 작품의 필요성을 느껴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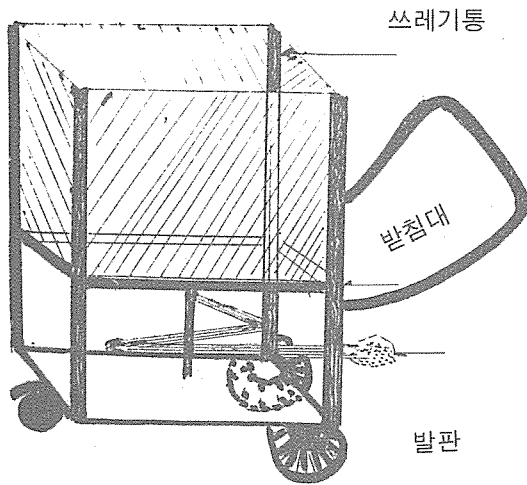
2. 작품의 내용

1)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나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 쓰레기통 몸체 밑에 바퀴를 달아 수레 식으로 끌고 다닐 수 있어 편리하고 많은 양의 쓰레기도 가볍게 운반할 수 있어 편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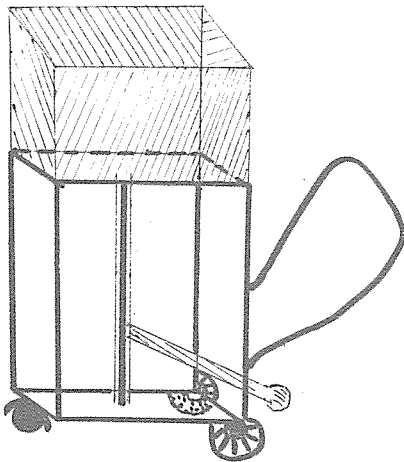
2) 무거운 양의 쓰레기를 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발로 발판을 눌러주면 쓰레기 통이 공중으로 뜨는 동시에 쓰레기 차의 인부들이 쓰레기통을 받게 되므로 힘 안들이고 쓰레기차에 이동시킬 수 있으며, 손을 대지 않으니 위생적이라 할 수 있다.

3. 제작과정

- 1) 재료비 : 철물~9,000원, 나무상자~1,000원
바퀴 : 1,000원, 페인트 : 1,000원
- 2) 제작비 : 5,000원
- 3) 합 계 : 17,500원
- 4) 그림① : 정지 상태의 모습
그림② : 발판을 눌러 쓰레기통이 올라간 상태



〈그림 1〉 정지상태의 모습



〈그림 2〉 발판을 눌러 쓰레기통이 올라간 상태

4. 사용에서의 실제

본 작품을 처음 만들어 사용할 때는 이웃 주

부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고 물었으나 사용방법까지 알고난 지금에는, “딸랑 딸랑 딸랑”

쓰레기차가 오기만 하면 우리집 쓰레기, 옆집, 앞집 쓰레기를 모두 엮어 함께 운반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집 골목은 웃음 꽃이 피기도 하며 더욱 깨끗한 거리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쓰레기 차의 인부들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먼저 받아 주려다 지금은 들어 올리기 편해서 좋다고 피로회복의 웃음을 짓기도 한다.

주민들도 사용해 보고는 판매하는 곳만 있으면 사고 싶다고 군침을 삼키기도 한다.

5. 사용결과

반자동 쓰레기 운반 수레를 사용하였더니,

1) 무거운 쓰레기통을 손으로 밀고 다닐 수 있어 매우 쉽게 운반되었다.

2) 쓰레기통을 보관하는 곳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여도 지저분하기 마련인데 이 쓰레기 수레를 사용하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운반시에도 매우 위생적이다.

3) 쓰레기를 쓰레기차로 이동시킬 때도 발로 눌러주어 운반하므로 매우 편리하였다.

6. 제 언

한개의 작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재료비나 제작비가 비쌌지만 현실화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싸게 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미관상 보기좋은 이 쓰레기 통을 부러워하는 가정은 물론 이 편리함을 미처 맛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믿으며 매듭을 짓겠다.

正義를 俱現하여 밝은 社會 이룩하자